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용역 착수...10월까지 정부에 추천

설립방식 선정→사전심사→평가심사 등 3단계 절차
기존 연구 결과 원천 배제...국가기관 통계만 활용
다양한 설립 방식 열어놔...도 “순천대 참여해달라”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본격화했다. 용역을 거쳐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의 윤곽이 나오면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정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 기관인 글로벌 컨설팅업체 에이티케이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에이티케이코리아는 컨설팅 영역을, 지평은 용역의 법적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무 영역을 담당한다.

용역 기관이 설립방식선정위원회(7·8월), 사전심사위원회(9월), 평가심사위원회(10월)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절차 별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확정한다. 평가심사위원회는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각 위원회에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한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와 사전심사위원회는 인력풀 3배수에서 총 15명을, 평가심사위원회는 인력풀 5배수에서 총 20명을 선정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각 단계마다 대학, 지역, 이해관계자를 완전 배제한 독립된 전문가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립중

양의료원,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통계만 활용한다.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전 시·군 대상 여론조사(2회)를 비롯, 대학이 용역 주제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향후 추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과 지역에는 선정 지역에 버금가는 보건 의료 혜택과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다만, 순천대가 전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 공모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는 용역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이티케이코리아 관계자는 “순천대와 순천시가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용역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계속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전남의 2개 국립대 모두 동참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업 지시서 설립 방식에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 데 대해 에이티케이코리아 관계자는 “공공의대 또는 한 대학은 일반의대, 다른 대학은 공공의대 설립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의대와 일반의대·공공의대 설립 방식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공역에 착수했기 때문에 (순천대가) 링에 올라와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하면 용역역사에서 검토하고 설립방식위원회에서 방향을 잡는 만큼 해답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배경에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양 대학(목포대·순천대)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하고 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순천대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일 오후 광주 DJ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남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 ▶ 관련기사 4면 /김예리 기자

광주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첫 여성 의장 탄생

후반기 신수정 의장 선출
부의장 서용규·채은지 의원

광주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광주시의회는 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신수정(5·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을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체 23표 중 찬성 16표, 무효 4표, 기권 3표를 얻었다. 1991년 7월 지방의회 출범 이후 광주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자.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서 1차 투표에 이은 결



신수정, 서용규, 채은지

선 투표 결과, 초선의 강수훈(서구1)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신임 신수정 의장은 “협치와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세련된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시민의 삶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출신인 신수정 의장은 제 5·6·7대 북구위원을 지냈으며 제 8·9대 광주시의원 재직 중 ‘전국 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로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

수 사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서용규(7·민주당·비례) 의원과 채은지(7·민주당·비례) 의원,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나서 과반을 득표한 서의원이 제1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나머지 2명의 후보 중 채 의원이 15표, 김 의원이 5표를 얻어 채 의원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채은지 부의장은 역대 최연소다. 후반기 의장단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은 오는 11일, 운영위원장은 오는 16일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박성기 기자

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자금 100만원 지원

피해 473건...추경 3억5천만원 확보

전남도는 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천만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차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피해자 전원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인터뷰·임택 광주동구청장	5면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찬바람’	12면
광주 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KIA-LG 맞대결 본격전투 경쟁	16면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다문화시대를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